

영영 이별 (故 백성근 작가에 부쳐)

 **경남신문**

김유경 기자

단 한 번 만나고 영영 이별한 사람이 있다.

헤어질 때 또 보자는 약속은 하지 않았으나, 필연적으로 다시 만나게 될 거라 확신했었다. 작업실 바깥으로 나와 멀어져가는 차 뒤꽂무니를 우두커니 바라보고 서 있던 B. 그게 내가 본 마지막 B의 모습이다.

B는 조각가였다. 마흔 초반이었으나 가무잡잡한 피부가 나이에 비해 건강해 보였고 걸음걸이는 활기찼으며, 내성적이었지만 타인에게 쉽게 드러내지 않는 생



동감이 그의 눈 속에는 있었다. 2012년 늦봄, 취재차 들른 창원외 한 전시회에서 나는 B를 처음 만났다. 아니, 엄밀히 따지자면 그의 작품을 먼저 만났다. 철사에 인견사를 친친 감아 공중에 매단, 커다란 항공모함을 연상케 하는 낯선 조형물. 그것은 전시장 입구 저 멀리서부터 기묘한 흡인력을 내뿜으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양식이랄까. 작가는 B였다. B? 고개를 갸우뚱했다. 1년 가까이 미술담당 기자로 살면서 경상남도 내에서 활동하는 웬만한 작가 이름 정도는 다 섭렵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B라는 이름은 생경했다. B의 작

단 한 번 만나고 영영 이별한 사람 B.
B씨. 거기서도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수기는 미술을 담당했던 지난
2012년 초여름 조각가 故 백성근 작가
를 취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세
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의 장례

식장을 찾아갔던, 일종의 개인적 후일담
입니다. 이후 사회부, 경제부, 뉴미디어부
등을 거치며 다양한 지역의 이슈를 다루
었지만 백성근 작가와의 잠깐 스쳤지만
강렬했던 교감, 그 순간이 신입 기자였던
저에게 깊게 아로새겨져 모든 취재현장
이 어찌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소중
함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레지던스·경남아트페어 3년째 ‘순항’

2012 경남 문화예술 결산 ③ 미술

임진년이 저물고 계사년이 밝아온다. 2012년 올해
경남미술계는 재능있는 미술인들을 떠나보내는 동
시에 경남미술 집행부가 새롭게 선출되며 새로운
움직임을 예고하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지역 미
술인들의 동향과 미술계의 흐름, 시장 형성 측면에
있어서의 2012년 경남 미술계를 간략하게 짚어보
는 시간을 갖는다.

▲백성근, 장영준, 권영호 작가 타계

올해 경남 미술계는 재능있는 젊은 작가와 원로
작가 두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들은 바로 설치
미술가 백성근, 권영호 경남대 미술교육과 명예교
수, 석재화가 장영준 화백. 7월 초 세상을 떠난 백
작가는 설치물의 동세를 아름답게 잡아내는 키네
틱 아트의 선봉주자였고, 권영호 교수는 문, 달, 목
어 등 한국적·불교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그림을
그려왔으며 8월에 타계한 장 화백은 돌가투에 색채
를 입힌 석재화의 대가로 활동해왔다. 특히 백 작가
는 40대의 젊은 나이로 가을에 열릴 계획이었던 개
인전을 준비 중이었고, 장 화백은 오랜 시간 기다린
일본 나가사키 법정의 원폭피해자 보상판결 결심
을 보지 못하고 타계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레지던스 활동 3년, 개선점 드러나

경남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입주작
가들을 지원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3년째 순항했
다. (사)경남문화예술연구원, 구복예술촌, 정수예
술촌 등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그 수
준도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
만 레지던스 사업이 성행하다 보니 특색 없이 고만
고만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인데다, 작가들 사이에서
도 ‘레지던스 참여가 경력으로 작용하는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실정.
1년이라는 짧은 시간과 단위 예산에 내몰리는 참여
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심리적 조급성 때문에 참
작의 주체로서 가져야 할 자율성이 다소 위축되며,
한국작가를 외국으로 진출시키는 데에도 더욱 적
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올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아트페어.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문자문명 베이징전. (오른쪽) 지난 11월 타계한 권영호(왼쪽 사진) 경남대 명예교수와
지난 8월 타계한 장영준 화백의 생전 모습.

아트페어 틀 갖추고 안정케도 올랐지만
기업체 많은 경남 이점 활용 못해

레지던스 수준 양호하고 많이 생겼지만
프로그램 특색없고 자율성 위축된다 지적도

지역 기반한 미술전시 꾸준히 열려
백성근·장영준·권영호 작가 타계 ‘아픔’

지갑을 열지 못했다.

▲지역의 메리트 살리지 못하는 미술시장
경남아트페어를 비롯한 중소아트페어에서 늘 제

▲지역 기반한 전시회들 잇따라

올해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미술전시가 잇따랐
다. 5월에 북경 서법원에서 교류전으로 열렸던 문자
문명전도 가을에 다시 한 번 일본작가들을 초청해
창원성산아트홀 전관을 빌려 치러졌으며 지역 작가
들의 작품과 아시아 지역 전반기의 작가들의 미술품
을 감상할 수 있는 아시아미술제, 지역의 젊은작가
들의 작품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신진작가전도 꾸
준히 열렸다. 또 지역작가들의 갤러리 초대전이나
대관을 통한 개인전이 꾸준히 이뤄졌다. 하지만 일
부 작가들은 큰 고민 없이 자동적, 기술적으로 제작
한 미술품을 매 전시마다 재탕, 삼탕하면서 구태라
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작고 작가 미술관 건립과 지원 노력

작고한 경남 출신 대가들의 미술관 건립이나 지



故 백성근 작가는 1971년 경남 고성
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아대학교 조소과
를 졸업하고 두 차례의 개인전 이후 전
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여가던 경남의 젊
은 작가였습니다. 첫 개인전은 1998년
부산 스페이스 월드에서 ‘새-비상을 위
한 준비’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개인
전은 1999년 포스코 미술관에서 ‘남
극’이라는 주제로 치러졌습니다. 제가
당시 취재했던 전시는 창원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 열린 지역작가 단체전이었
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추구하면서도 물, 바람, 관람객
들의 움직임 등에 의한 미세한 움직임에
따라 작품 또한 동력을 가지도록 작품을
기획하는 키네틱아트에 기반을 두었습니
다. 다만 기계적 작동에 중점을 둔 서구
적인 키네틱 아트를 벗어나 유려한 곡선
과 유연한 움직임을 가미한 자신만의 작
품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딱 한 번 스치
고 이별한 故 백성근 작가를 추모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P)